



# 연중 제6주일(2월 12일)

##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 5,17-37)



### 귀한 예물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3-24)

화해와 용서는 작은 죽음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고통을 늘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벗어나 화해와 용서를 감행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은 그들을 귀한 예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2. 16.)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당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5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25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2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





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29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0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1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마태 5,17)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나는 주위 이웃들에게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 5,37)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전해야 할 말 중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마태 5, 37)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단순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다시 벗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함으로 풀게 되는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주시고, 관계의 참된 모습을 되찾아주시며,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지혜를 가르쳐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예'와 '아니오'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분명한 실천이 성숙한 삶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